



BcN 서비스 현황

- 서비스 준비 상황과 사업자 전략 -

통신사업자들이 BcN 서비스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해 7월 본격적인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다. 데이콤, SK텔레콤, KT 등이 국내외 BcN 장비를 활용한 서비스망 구축 작업을 완료하고, BcN 서비스에 나선다. BcN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4개 사업자들의 준비상황과 서비스 전략을 자세히 살펴본다.

글 | 조계원 기자

7월부터 시작되는 BcN 시범 서비스에서 현재 가장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는 사업자는 데이콤의 광개토 컨소시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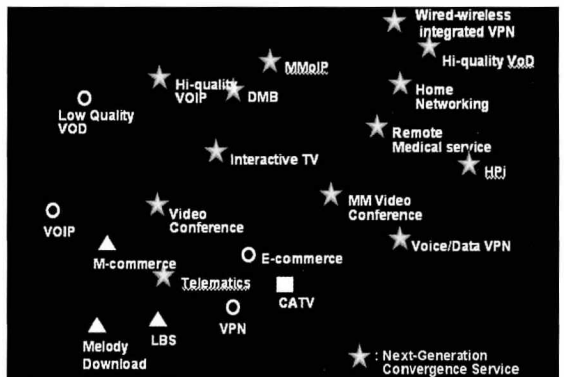
데이콤은 이미 노텔로부터 BcN 구현에 가장 중요한 장비인 소프트 스위치를 도입해 서비스 준비를 끝낸 상태이며 실제 서비스를 위해 막바지 시험작업을 진행 중이다.

데이콤이 BcN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가장 앞선 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가 시작된다. 데이콤에 이어 서비스 개통이 예상되는 사업자는 SK텔레콤으로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이면 BcN망 개통식을 가질 예정이다.

KT 옥타브 컨소시엄도 올 10월을 목표로 BcN망 개통을 준비 중이다. 특히 KT 망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는 순수 국산 장비들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뒤늦게 사업에 참여한 케이블TV 컨소시엄도 사업권 확보가 다소 늦었지만 9월 중에는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BcN의 서비스맵





BcN 서비스 현황

BcN망 개통과 함께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옥타브 컨소시엄은 고품질 영상전화, 오픈 API 서비스, N-PVR 등 24종의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고, 광개토 컨소시엄은 DCA TV, T거버먼트 등 25종, 유비넷 컨소시엄이 SCN, DCA TV, RFID/USN, 위성DMB 등 25종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음성·데이터 통합 분야에서는 음성과 영상을 통합한 인터넷전화(VoIP), 헬스케어, 홈 시큐어 등이 서비스될 예정이다. 통신·방송 융합 분야에서는 각종 VOD 서비스를 비롯해 음성데이터 방송, T커머스, 위성 DMB와 위성방송을 수신해 케이블 채널로 보여주는 SCN 등 다양한 서비스가 선보일 예정이다. 유무선 통합 분야에서는 휴대전화와 연동된 영상전화, RFID/USN을 활용한 물류시스템, 위치기반 기술을 이용한 각종 서비스들을 맞출 수 있게 된다.

사업자들의 전략

옥타브 컨소시엄

옥타브 컨소시엄은 내년 8월부터 서울, 대전, 광주 등에서 600가구를 대상으로 BcN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초기 서비스는 VoIP, 고품질 영상통화는 물론, 유·무선 영상통화 연동서비스와 T커머스, TV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KT는 특히 RFID/USN, IPv6 응용서비스 등 망의 활용 틀을 바꾸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BcN를 통해 전화망과 전용회선망, 초고속인터넷망을 한데 아우르는 모델을 찾고 있다.

KT는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음성데이터 통합분야, 유무선 통합분야(유무선 영상전화 연동, RFID/U센터네트워크, 와이브로), 통신융합분야(FTTH, IP-TV, 홈네트워크) 등

3대축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2007년까지 시범 사업을 거친 뒤 상용 서비스를 도입하고 2010년까지 네트워크 인프라를 완전히 BcN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KT는 BcN 사업의 수익모델 중 하나로 싱글사인온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싱글사인온은 한 번의 로그인으로 은행결제, 항공권예약, 보험, 게임, 메신저, T커머스, 주문형비디오(VoD) 등의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BcN 환경에서 비즈니스 게이트웨이 역할을 함으로써 주도권을 갖겠다는 전략이다. KT는 2007년 본격화할 BcN 서비스를 레드(IPTV 등 엔터테인먼트), 그린(화상통신), 블루(E러닝), 옐로(홈케어)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교육서비스(EoD : Education on Demand)를 주력 서비스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전화(VoIP)와 주문형비디오(VoD)를 기본 서비스로 제공하고, IPTV(SD급)와 비디오폰은 프리미엄, 홈케어 및 교육서비스를 옵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전략을 내놓았다.

《〈 참여업체

망 업체 : KT, KTF, 스카이라이프 등

장비업체 : 삼성전자, LG전자, 옥성전자, 씨앤에스테크놀로지 등 6개

솔루션·콘텐츠 업체 : KTH, 신지소프트 등 5개 업체

광개토 컨소시엄

광개토 컨소시엄은 이번 시범 서비스에서 통방융합, 음성 데이터통합 등 컨버전스 서비스를 서울, 울산, 부천 등지의 가입자 350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데이콤은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파워콤의 광동축융합망(HFC)을 기반으로 TV포털, HDTV 등의 통방 융합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TV포털 서비스는 일반 가정에서 TV로 포털서비스나 각종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모델로, 데이콤이 인터넷 포털업체인 다음과 공동으로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데이콤은 BcN 서비스 모델 발굴을 위해 통방 융합서비스, 유무선 통합 서비스, 음성·데이터 통합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서비스 장비 및 솔루션



에 대해서도 검증할 계획이다.

데이콤은 '통방 융합 서비스'로 T-거버먼트, 양방향 TV 포털, T-커머스, 음악채널(MoD), HD급 케이블 VoD와 IP VoD 서비스, '유무선 통합 서비스'로 WPBX를 활용한 기업용 원폰 서비스, PDA에 무선 모듈 및 카메라를 장착한 유무선 연동 영상전화 서비스, '음성·데이터 통합 서비스'로 음성/영상전화, 멀티미디어 메신저 서비스 등 다양한 차세대 통신서비스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데이콤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HD급 VoD 국산화 기술, 스트리밍 서버 기술, 3차원 디스플레이 기술 등 시범과제에 적용되는 주요 핵심기술들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모델의 조기 상용화를 통해 2008년까지 흑자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데이콤은 1단계 BcN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2단계로 2007년까지 IP기반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 유·무선 액세스 기반을 확충해 BcN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3단계인 2008년 이후에는 부가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기존 회선 망 축소 및 IP 전환으로 BcN 전달 망을 완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 컨소시엄 참여업체

망 업체 : 데이콤, 파워콤, LG텔레콤 등 LG그룹 통신 3사
방송사 : 부천방송, 은평방송 등 복수중합유선방송사업자(SO)
장비솔루션 : LG전자, 콤텍시스템, 로커스, 현대시스템 등
공공기관 : 광주시, 대전시, 부천시, 은평구청, KIST 등

유비넷 컨소시엄

유비넷 컨소시엄에는 하나로텔레콤, 장비업체를 비롯해 솔루션, 콘텐츠 분야에 걸쳐 총 31개 업체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BcN 플랫폼 장비를 비롯해 유무선 통합 단말기, 통방 융합 단말기 등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공급을 맡는다. 두 업체는 BcN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유무선 WLAN(무선 랜) 단말기, 위성DMB, IP-TV 셋톱박스 등 핵심 시장에서 이미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유비넷 컨소시엄은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에서 400가구를 대상으로 VoIP, 고품질 영상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WCDMA 영상전화 연동서비스, 지상파 디지털방송, 케이블 디지털방송, IPTV, VOD, DMB, T거버먼트, TV뱅킹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디지털홈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유비넷 컨소시엄은 음성 데이터 통합, 유무선 연동, 통방융합 서비스 중심의 BcN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BcN 시범 사업을 통해 정부의 IT839 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 발굴,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의 활성화, 국제적 표준 선도, 광대역 인프라의 조기 구축 등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유비넷 컨소시엄은 특히 BcN 킬러앱 발굴과 상용화에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BcN을 통해 음성 데이터 통합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선에선 기존 VoIP 가입자 및 신규 가입자에게 SIP 기반 영상전화 및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내년에는 무선인 EV-DO 망에서 유선망과의 화상전화 연동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통신·방송융합 서비스와 텔레매틱스, 홈네트워크, 와이브로 등이 모두 BcN망 위에서 서비스된다.

SK텔레콤은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유무선 연동과 통합을 추진해 각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고, 상용화는 내년 이후로 잡고 있다.

《《 컨소시엄 참여 업체

망 업체 :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장비 솔루션 업체 : LG전자, 해리트 등 23개사
콘텐츠 보안업체 : 시큐어소프트 등 7개사

케이블BcN 컨소시엄

한국케이블TV협회가 케이블 BcN 컨소시엄을 만들어 BcN 시범사업자로 추가 지정됐다. 케이블 BcN 컨소시엄은 수원방송이 대표 주관기관이고 태광, C&M, CJ, 큐릭스, 강남케이블, 드림시티 등 70개 SO와 KDMC, 큐릭스 등 4



개 DMC가 공동주관 기관을 맡는다.

케이블BcN 컨소시엄은 올해 말까지 총 6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TPS 시범 서비스와 양방향 데이터방송, HFC망을 활용하는 BcN 서비스 핵심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그동안 케이블BcN을 추진하면서 케이블방송,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을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TPS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케이블폰 연구반'을 가동하며 서비스 방향을 수립해 왔다. 케이블BcN은 올 10월 안에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케이블TV망 고도화를 통해 서울 강남, 도봉, 강동, 서초 등 4개 지역 350가구와 경기 성남과 수원지역 200가구, 대구 150가구 등 모두 7개 지역 700가구를 대상으로 주문형비디오(VOD), 양방향 데이터방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케이블BcN 컨소시엄은 완벽한 양방향서비스를 무기로 T-커머스를 통한 매출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T-커머스를 통해 1차년도인 2006년에 30억원에서 5차년도인 2010년에는 1,780억원의 매출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VoIP 서비스의 경우 2006년 18만 가입자, 2010년 1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2010년 매출 1,65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케이블 BcN은 1,200만 명에 이르는 가입자 망을 기반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일부 서비스는 상용화할 계획이다.

《《 컨소시엄 업체 구성

연구기관 : K렙스, KETI, 한양대

장비, 솔루션업체 : 27개사

과제 및 전망

BcN으로 인해 발생하는 파급 효과는 유무선 가입자 수가 각각 1,000만, 장비 시장 26조원, 37만명의 고용창출, 수출효과 1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유무선 통합, 통신방송 융합형 서비스 상품의 출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고려하면 산업 유발 효과는 1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0년까지 50M~100Mbps급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통신 방송 융합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러한 BcN 사업의 성공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만 정부와 민간 투자를 포함해 약 2조원이 넘는다.

앞으로 정보통신 환경은 유무선·통신·방송이 모두 통합되고 지능화되면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기본 서비스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발된 장비의 상용화 기술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추진되어온 기술개발과 상용화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BcN 표준모델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광대역통합망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BcN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유도해 국내 IT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정부 서비스 등 공공부문 응용서비스를 기반으로 초고속 정보통신 장비와 응용 서비스를 BcN과 연계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

BcN 서비스 단계별 로드맵

